광주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탄력 받는다

광주지법 "설계공모 당선작 무효사유 없다 판단"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당선 설계업체와 계약 체결…발주 공사·용역 계약 투명성 입증

광주시 핵심공약 사업인 Y프로젝트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국제설계공모 당선작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광주지방법원에서 기각돼 설계공모 과정 제기된 특혜 의혹이 일단락 됐다는 점에서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유석동)는 건축사무소 A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에서 A업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업체는 지난 해 11월 광주시가 공고한 아시아물역사 테마체험관과 자연형 물놀이 체험시설 조성 설계 공모에 응모했다.

이후 A업체사 포함된 컨소시엄은 2등 입상작으로 선정되자 업체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업체는 당선작의 업체 대표자가 광주시 건축정책 위원회위원으로 설계공모 절차 중 기획 단계의 심의에 참석한 사실 등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선업체 대표가 기획심의에 참가했더라도 설계공모사업 자체에 관한 자문위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주차장 계획 대수 일부가 지침에서 제외됐다는 A업체 측의 주장도 심사위원회가 위반 여부를 토론한 뒤 투표로 당선작을 결정한 이상 무효로 할 정도로 심사 절차가 부실했다거나 공정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광주시는 "이번 가처분소송은 심사결과에 불복한 2등 입상 업체가 제기한 것으로, 법원이 당선작 선정과정에 절차적 중대 하자나 무효로 볼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는 이번 설계공모가 디자인의 우수성, 창의성, 계획의 적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위원회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진행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심사 결과에 불복한 가처분 신청으로 사업 지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입장이다.

광주시는 이번 가처분소송 기각 결정에 따라 그동안 중단했던 당선 설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A업체가 제기한 본안 소송에서도 무리 없이 승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영산강 익사이팅 존' 사업은 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과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한편 광주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 및 용역 계약과 관련, 최근 5년간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된 가처분 신청 8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같은 법원의 일관된 기각 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 절차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지구·생태계 보호 노래해요" 26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황룡강 친수공원에서 열린 '2025 광주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행사'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그린 지구와 생태계 보호를 주제로 한 피켓을 들고 환경을 주제로 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인공지능시대, 인간의 존엄성·역할 묻는다

광주국제교류센터, 국제인문위크 내일부터 3일간 DJ센터

"당신의 존엄은 알고리즘 위에 있다."

인공지능시대 인간다움에 대해 국내 유명 학자와 작가들이 논의하는 자리가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26일 광주관광공사에 따르면 광주국제교류센터 공동 주관으로 '2025 광주국제인문위크- 인문위크 1.0'를 개최한다.

이번 인문위크는 술 중심 사회에서 인간의 존엄과 역할, 인문학의 의미를 되돌아보는 토크콘서트로 꾸며진다.

뇌과학자 장동선, 인문학자 채사장, 정치경제연구자 홍기빈 등이 무대에 올라 'AI 시대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기술과 공존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등을 이야기할 예정이다.

'2025 광주국제인문위크'는 세계적 AI 윤리 석학인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 토비 월시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한다.

'Session 1: AI와 교육의 미래', 'Session 2: AI와 민주주의', 'Session 3: AI와 미래사회' 등 기술의 시대 속 사회, 교육, 거버넌스에 대해 인문학적 해법을 모색하는 학술 세션으로 꾸며진다.

장동선 박사는 "AI는 도구이며, 그 도구를 통해 우리는 더 깊이 인간을 이해할 수 있다"는 주제로 기계와 인간 정신의 차이, 그리고 기술의 한계와 가능성을 조명한다.

채사장 작가는 "기술은 인간의 확장이다. 우리는 기술을 통해 더 성찰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며 AI 사회를 바라보는 철학적 시선을 공유할 예정이다.

홍기빈 소장은 '데이터 시대의 공동체'를 주제로, 효율과 성장보다 중요한 인간 중심 경제 가치를 이야기한다.

김진강 광주관광공사 사장은 "2025 광주국제인문위크를 통해 AI 시대가 윤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진화하는 지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광주국제인문위크'는 31일까지 걸쳐 광주전역에서 진행되는 대표축제 브랜드인 '2025 G-FESTA'와 연계한 '광주 더 오월 스탬프 투어'를 함께 진행하며 참가자들에게 기념품 증정 이벤트도 개최한다. /정병호 기자 jusbh@

저탄소·유기농업 육성…전남도,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40억원 지원

유기농인증 농가 ha당 200만원

전남도가 26일 "저탄소·친환경유기농업 육성을 위해 유기농업자재 등 친환경농자재 구입비 94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농자재 사업으로 유기농업자재공급(196억원), 토양개량제 공급(193억원), 유기질비료 공급(201억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350억원) 등을 지원한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어업법에 유기농업자재로 등록된 유기농자재와 토양검정비용 등이 지원대상이며 유기농인증 농가는 ha당 200만원, 무농약 농가는 150만원을 지원한다.

토양개량제는 마을·들녘별 단위로 3년 주기로 공급하고 있으며,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157ppm 미만)와 산성토양(ph 6.5 미만)을 개량하기 위해 규산질비료와 석회질비료 7만4000t을 공급한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유기질비료와 가축분퇴비 43만 6000t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단지화해 공동방제 및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원한다. 벼의 경우 유기농인증 농가는 ha당 120만원, 무농약 농가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각종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운 농가에 친환경농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 생산비 부담을 줄이는 등 친환경농업을 지속해서 실천하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강진 새청무쌀, 일본 식탁 오른다

200t 수출 상차식…대형 유통업체 '베이시아' 통해 공급

강진에서 생산된 새청무쌀이 첫 일본 수출길에 올랐다.

26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강진통합RPC에서 새청무쌀 200t 수출 상차식 행사가 열렸다. 전남 쌀이 일본으로 수출되는 건 해남군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에 선적된 새청무쌀 200t은 일본 대형 유통업체인 '베이시아'를 통해 일본 현지 소비자에게 공급된다. 일본은 최근 쌀 공급 불안정과 가격 폭등으로 해외 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베이시아도 이 같은 상황에서 전남산 쌀의 수입을 결정했다. 전남도는 이번 수출이 전남쌀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해외시장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청무쌀은 전남도가 지역 재배환경 등을 고려해 개발한 품종으로 전남 내 재배 면적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 새청무쌀은 일본 식품안전 기준에 맞춰 철저한 품질 검사 절차를 거친 고품질 쌀로 일본 내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해부터 국내 쌀값 안정 대책 일환으로 고품질 쌀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지자체와 농협 간 협업을 지속해오고 있다. 이번 수출도 변화하는 시장에 적극 대응한 사례라는 분석이다.

이날 행사에는 베이시아 오타 상 부사장, 강진원 강진군수, 이광일 농협중앙회 전남본부장 등이 참석해 강진쌀의 첫 수출을 축하함과 동시에 향후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의지를 다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강진 새청무쌀 일본 수출은 전남쌀의 지속적 해외시장 개척 노력의 결실"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